

미국 로스 앤젤레스 지역 한인의 정보 추구 행태

윤 정 욱

목 차

- | | |
|-------------------------|------------------|
| 1. 서 론 | 4. 결 과 |
| 2. 정보요구와 정보추구 행태에 관한 연구 | 5. 토 의 |
| 3. 연구방법 | 6. 이후의 연구를 위한 제언 |

1. 서 론

현대 사회에서 시민의 생활의 질을 높이는 자원으로서의 정보의 중요성이 날로 커짐에 따라 대중이 일상 생활에서 어떤 정보를 필요로 하는가, 필요한 정보를 어떻게 구하는가 하는 문제는 미국의 도서관 및 정보 서비스 종사자들의 주된 관심사가 되어 왔다 (WHCLIS, 1979). 특히 칠십년대 이후로 일반 대중의 정보 요구 (information need) 와 정보 추구 행태 (information seeking behavior) 에 대한 대규모의 연구가 캘리포니아, 워싱턴, 뉴 잉글랜드 육개주 등지에서 행해졌고 흑인 및 멕시코계 등의 미국내 소수 민족의 정보 환경에 대한 연구도 여럿 나왔다. 이 연구들에 의하면 백인 주류 집단과 소수 민족 집단 사이 또는 서로 다른 소수 민족 집단 사이에는 그 정보 요구 및 정보 추구 행태에 상당한 차이가 있고, 또한 동일 민족 집단내에서도 교육 정도, 소득, 언어 능력 등에 따라 개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내 소수 민족 중의 하나인 한인의 정보 요구 및 정보 추구 행태에 관해서는 연구된 바가 없다. 한인은 미국 이민사가 비교적 짧지만 교육 수준이 높고 자녀들에 대한 교육열이 매우 높은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U.S.Commission on Civil

• Bibliographic Consultant, Davis, California, U.S.A.

Rights, 1988 ; Yi, 1989). 그러나 대체로 미국의 주류 사회와의 접촉이 적고 그 문화와 사회 전반에 대한 이해도 적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1992년 로스 앤젤레스 흑인 폭동 당시 한인의 피해를 보면 한인들이 미국의 주류 사회 뿐만 아니라 주변의 소수 민족들로부터 소외당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같은 한인 사회의 고립 상황은 한인들에 대한 미국내의 정책적 배려의 부재와 학문적 관심의 결여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사회적 배경하에 있는 한인들이 일상 생활에서 갖게 되는 정보 요구와 그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정보를 추구하는 행태를 살펴 보아 그 특성이 미국내 한인의 삶의 질에 대하여 미치는 영향을 밝히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정보 요구와 정보 추구 행태에 관한 연구

칠십년대 이후로 대중의 정보 요구와 정보 추구 행태에 관한 연구가 많이 나타났다. 여기서 말하는 정보 요구란 사람들의 일상 생활의 질을 높이는 것에 유용한 지극히 한정된 종류의 '알 거리'에 관한 요구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연구는 도서관의 참고 업무, 대민 서비스 개선 및 장서 개발의 측면에서 기본적인 것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이십여년의 연구의 축적에 따라 대중의 정보 요구에 대한 지식이 증대되고 도서관 및 정보 서비스에 관한 많은 개선책이 제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도서관 및 정보 서비스에는 별다른 실제적 개혁이 일어나지 않았음이 지적되었다 (Durrance, 1989). 따라서 급속히 변화하는 현대 사회에서 정보 전문가가 아닌 일반 대중이 그의 삶에서 어떤 정보를 필요로 하며 어떤 경로로 또한 얼마만큼의 만족도를 갖고 그 요구를 충족시키는가에 대한 연구는 대중의 요구에 보다 근접하는 도서관의 위상이 확립될 때까지는 계속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Mathew, 1988).

지금까지 나타난 연구 중 일반 대중의 정보 요구를 다룬 대표적인 것으로는 워싱턴주 발티모어시 (Warner, Murray, & Palmour, 1973), 시애틀시 (Dervin, et al., 1976), 캘리포니아주 (Palmour, et al., 1979; Dervin, et al., 1984), 뉴잉글랜드 육개주 (Chen & Hernon, 1982) 및 코네티컷주 (Chen & Burger, 1985) 에서 행해

진 것이 있다. 이들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 것은 다음과 같다 : 첫째, 대중들은 일상 생활의 어느 시점에서든 여러 가지 충족되지 않은 정보 요구를 갖고 있다. 둘째, 누구든지 가장 선호하는 정보원은 가족, 친인척 및 친지로 구성된 일차적 네트워크이다. 셋째, 대중의 생활에 도서관 등의 정보 전문 기관이 기여하는 바는 비교적 적은 편이다. 넷째, 사회의 여러 계층간에는 정보 요구의 종류와 정보 추구 행태에 큰 차이가 있다. 이 연구들은 전화 면담 혹은 직접 대담을 통해 각 개인의 정보 요구 사례를 파악하고 그에 관한 정보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단계별로 작용하는 결정요인들에 관하여 서술하는 'Sense-making approach' (Dervin, 1985)를 시도했는데 실제로 이 방법은 이 분야의 연구에 매우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이다. 이 연구들은 대중의 정보 환경 (information environment)에 대한 이해를 전반적으로 증진시킨 반면 백인인 주류 사회의 구성원의 요구에만 치중하여 사회, 경제 및 문화 등 여러 측면에서 소외되고 불이익을 받고 있는 소수 민족에 관하여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소수 민족에 관한 연구는 비교적 소규모로 이루어졌는데 흑인 및 멕시코계 미국인에 대한 연구 (Haro, 1981; Duran, 1977; Dervin, 1973) 가 몇 있고 중국인 등 동양계 미국인에 대한 연구 (Simsova & Chin, 1982; Louie, 1976) 는 매우 드물게 나타났을 뿐이다. 더욱이 소수 민족에 대한 연구는 종종 빈한한 지역에서 교육 및 생활 수준이 낮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민족간의 차이가 고려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부분의 소수 민족은 정보 빈곤층 (the information poor) 으로 불리우게 되었다. 칠십년대 중반 Childers는 미국 사회의 정보 빈곤층에 대하여 연구하고 미국내 주류 사회와 비주류 소수 민족 집단 사이에는 정보 자원 (information resources) 이 극히 차별적으로 분포되어 있고 통용되는 정보의 질에도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Childers, 1975). 그 이후의 연구들 도 이같은 차별적 상황은 별로 달라지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소수 민족들의 정보 환경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현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각 집단의 정보 요구와 정보 추구 행태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인은 동양계 미국인 중 다섯번째로 큰 집단으로 높은 교육열과 근면성으로 알려져 있으나 대부분이 이민 연한이 짧고 영어에 능통하지 않아 미국의 주류 사회와의 교동이 원활하지 않다 (Light & Bonacich, 1988; U.S.Commission on Civil

Rights, 1988; Gardner, Robey, & Smith, 1985). 한인들이 그들의 일상 생활에서 어떤 정보를 필요로 하는지, 어떻게 그 요구를 충족시키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연구된 바가 없다. 한인의 커뮤니케이션 행태와 사회 복지 시설에 관한 요구를 다룬 연구들 (Han, 1988; United Way, 1984; Kim, 1977; Chang, 1972) 이 있긴 하나 한인의 정보 환경에 관한 심층적 연구는 없으므로 이 연구는 이러한 지식의 공백 상태를 조금이나마 메꾸려는 의도에서 시도된 것이다.

3. 연구 방법

3.1 표본 추출 및 데이터 수집 과정

본 연구자는 1990년 11월 1일부터 1991년 1월 28일 사이에 캘리포니아주 로스 앤젤레스시에서 18세 이상의 한인 204명을 직접 인터뷰 하였다. 로스 앤젤레스시는 미국내 도시중 한인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곳으로 1980년과 1990년의 미국 인구 조사 당시 한인의 9%가 이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hung - ang Il - bo, 1992; U.S. Dept. of Commerce, 1983). 이 곳에는 시에서 공식적으로 지정된 한인 지역 (Korea town) 이 있고 한인 거주지, 상업지, 각종 한인 기관 및 시설이 집중되어 있어 한인들의 생활을 살피기에 적합하다.

표본은 Koreatown 및 인근 한인 집중 지역을 포괄하는 GTE 전화 번호부 (중앙 로스 앤젤레스, 1990년 10월 - 1991년 10월)에 수록된 한인 소유의 전화 번호로부터 체계적 무작위 추출 방식 (systematic random sampling) 으로 뽑았다. 데이터 수집 기간 동안 추출한 번호에 모두 487번의 전화를 걸어 표본 대상자에게 접촉하였고, 그 중 42%가 인터뷰에 참가할 것에 동의하였다. 인터뷰는 연구자가 인터뷰 대상자의 집, 일터 혹은 한인 지역내의 장소를 방문하여 이루어졌다.

3.2 데이터 수집 도구와 분석

인터뷰를 위한 설문은 1989년 9월과 1990년 7월-8월의 두차례에 걸쳐 테스트하

였다. 설문문의 내용은 영어와 한국어 두 언어로 되어 있었으나 인터뷰 응답자들의 선호에 따라 최종적인 인터뷰는 모두 한국어로 행해졌다. 인터뷰 질문은 응답자가 지난 석달간 갖고 있던 정보 요구 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이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정보를 구하는 과정에서 이용했던 모든 정보원의 종류, 가장 먼저 선택한 정보원의 종류 및 선택 이유, 가장 유용한 정보원의 종류 및 선택 이유, 응답자의 학력, 직업, 나이, 성별, 출생지, 이민 연한, 영어 구사 능력 등에 관한 것을 포함하고 있다.

자유 응답 방식의 질문 (Open-ended question) 에 대한 응답은 내용 분석 방법 (content analysis) 으로 정리하였고, 수집된 모든 데이터는 SAS (Statistical Analysis System, Cary, North Carolina: SAS Institute Inc., 1985, 6th ed.) 를 이용하여 요약, 정리, 분석하였다.

3.3 응답자의 특성

출생지, 성별, 연령 : 응답자의 98%는 한국에서 출생하였고, 52%는 남자이다. 연령은 18세부터 81세까지의 범위에 분포하였고 62%가 이십대와 삼십대였다.

교육 수준 : 응답자들은 평균 15.3년의 교육을 받았다. 그중 6%만이 12년 이하 즉 고졸 미만의 교육을 받았고 60%가 16년 이상의 교육을 받았다. 그러나 응답자의 절대 다수가 한국에서 교육을 받아 그 평균 연한은 13.3년에 이르며 41%가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였다.

직업 : 가장 많은 응답자가 전문직에 종사하였고 (24%), 그밖에는 도매, 소매업 (23%), 경영, 관리, 사무직 (12%), 점원, 잡무직 (12%), 숙련, 준숙련직 (7%)에 종사하였다. 나머지 20%는 무직자, 은퇴자, 학생 및 가정주부로 구성되었다.

이민 연한 : 응답자의 이민 당시 나이는 평균 29.4세로 최고령 이민자는 76세일 때에 이민하였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십대에 이민하였고 (38%), 삼십대 이민자도 20%에 달하였다. 응답자의 미국 거주 연한은 평균 9.24년으로 인터뷰 당시 2개월로부터 25년에 이르렀다. 응답자는 각각 10-14년 (25%), 5년 미만 (23%), 15-19년 (11%) 및 20년 이상 (5%)에 분포하였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5년 내지 9년 거주하였다.

영어 구사 능력 : 응답자 중 34%가 스스로 영어로 거의 말하지 못한다고 평가하였고 28%는 일하는데 필요한 영어는 구사한다고 하였다. 나머지 38%는 영어를 능통히 구사한다고 하였고 52%는 영문 해독에 능통하다고 스스로 평가하였다. 17%는 영문을 거의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4. 결 과

4.1 가장 중요한 정보 요구

이 연구에서 정보 요구는 일상 생활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하거나, 결정을 내리거나, 궁금한 것을 풀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알 거리' 라고 정의한다. 이 연구의 목적이 한인들의 정보 요구와 그에 따른 정보 추구 행태를 살펴보는 것이므로 응답자들이 가진 모든 정보 요구를 다 밝히는 대신 지난 석달 동안 가졌던 여러 가지 정보 요구들 중 가장 심각하게 생각했거나 중요하게 느꼈던 것을 한가지만 골라 서술하도록 했다. 응답자의 90%(N=186)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정보 요구에 대하여 서술할 수 있었다.

서술된 정보 요구는 내용 분석을 통해 파악된 내용의 유사성에 따라 일곱가지 주제 분야로 나누어졌다 (표 1을 보라). 주제 분야는 자녀 양육 및 교육, 경제 문제, 건강 및 정신 건강, 이민 생활 문제, 법률 관계 문제, 가족 관계 및 가정 생활, 기타 관심사를 포괄하였다.

가장 많은 응답자들이 자녀 양육 및 교육을 가장 중요한 정보 요구로 들었다 (N=50, 26.9%). Beal은 영국의 Sheffield 지방 주민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이 분야에 대한 정보는 가장 수준이 높은 시민들조차도 매우 얻기 어려워 하는 것을 발견했다 (Beal, 1979). 이 연구에서 한인들은 미국의 교육 제도에 대한 지식의 결여, 자녀 양육에 대한 한,미간 문화의 차이, 언어 능력의 부족으로 인한 소외, 미국화 되어 가는 자녀와의 갈등 등을 들며 이 분야에 관한 정보의 필요와 한인을 위한 교육 관계 프로그램의 시급성을 지적했다.

경제 문제는 주로 사업 문제, 소비자 문제, 구직, 당시 계속되던 중동 걸프전의 영

〈표 1〉 가장 중요한 정보 요구의 주제별 분포

주 제	응답자수	%
자녀 양육 및 교육	50	26.9
경제 문제	34	18.3
건강 및 정신 건강	30	16.1
이민 생활 문제	23	12.4
법률 관계 문제	16	8.6
가족 관계 및 가정 생활	10	5.4
기타 관심사	23	12.4
합 계	186	100%

향으로 인한 전반적 경기 침체, 직장에서의 권익 문제 등을 포함하며 두번째로 많은 수의 응답자들이 가장 중요한 정보 요구로 들었다 (N=34, 18.3%). 이 같은 경제 문제에 대한 것은 다른 연구들에서도 종종 가장 심각한 정보 요구 중의 하나로 보고되었다 (Chen & Burger, 1985; Dervin, et al, 1985; Chen & Hernon, 1984; Palmour, et al., 1979).

건강 및 정신 건강에 관한 정보 요구는 주로 본인 혹은 가족의 지병 등 현재 당면한 건강 문제와 나중의 건강에 대한 염려와 대비책에 대한 관심으로 대별할 수 있는데 모두 서른 명의 응답자가 지적했다 (16.1 %). 실제로 여러 응답자가 심장 발작, 고혈압, 당뇨병, 그 밖의 불치병 등을 갖고 있었으며 과로, 스트레스, 정신 질환 등의 문제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많은 응답자가 자영업자로 의료 보험을 갖고 있지 않아 앞으로 생기게 될 건강 문제에 대해서 크게 우려하고 있었다.

이민 생활 문제에 관한 정보 요구는 특별히 이민자들이 미국의 제도나 문화에 관해서 알고 이곳 생활에 적응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들(how-to information)을 말한다. 한인들의 이민은 칠십년대 이후로 계속되고 있으므로 새로운 이민자들이 필요로 하는 각종 정부 기관과 제도, 사회 복지 시설과 프로그램, 각종 서식 및 권리 등에 관한 정보는 끊임없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 정보 요구는 종종 응답자 본인이 새로운 이민자이거나 그러한 주변의 사람들을 도와야 하는 입장에서 갖게 되는 것으로 보였다 (N=23, 12.4%).

법률 관계 문제에 관한 정보 요구는 모두 열 여섯 명의 응답자가 지적했다 (8.6%). Dervin 등의 연구와 Palmour 등의 연구에서는 이 분야에 관해 5%미만의 응답자만이 정보 요구를 가졌던 것에 비해 비교적 많은 한인이 이에 관한 정보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여러 사람이 단순한 정보만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인 법률 구조 기관의 도움이나 실제적인 법 집행을 필요로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응답자가 미국의 법률 제도에 관한 무지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거나 권리를 찾지 못하는 경우, 불필요하게 법률 위반이나 소송에 연루되는 경우도 있어 일상 생활에서 한인들이 갖는 최소한의 권리부터 보호하고 도움을 주는 서비스가 절실히 요구되는 것으로 보였다.

가족 관계 및 가정 생활에 관한 정보 요구는 비교적 적은 수의 응답자가 들고 있으나 (N=10, 5.4%), 결혼 가정, 가정 파탄, 이민 이후의 부부의 역할 갈등, 가족 간의 언어 장벽, 세대차 및 문화적 차이 등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기타 정보 요구는 마약, 범죄, AIDS, 인종 차별 등 사회 문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 종교, 가치관, 취미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관심을 망라하고 있다.

이같이 자신이 갖고 있는 정보 요구를 기술한 186명의 응답자중 92%(N=174)가 자신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정보를 구하였다. 정보를 구하려고 시도하지 않은 열 두명의 응답자는 중요한 정보 요구지만 당장 꼭 필요하지는 않다, 정보를 구할 시간이나 돈이 없다, 단순히 정보를 구하고 싶지 않다 등의 이유를 들었다. 다음에서는 정보를 추구하는 과정에서의 행태를 살펴 보도록 한다.

4.2 정보원의 이용

자신이 갖고 있는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정보를 추구한 적이 있는 174명의 응답자들은 정보를 구하는 과정에서 한번이라도 이용한 적이 있는 정보원 (information source)의 종류를 열거하고 그 특정한 정보원이 한인 사회 정보원인지 미국 정보원인지 명시하였다. 이 연구를 위해 제시된 정보원은 모두 열 네 가지로 가족/친척, 친구/이웃, 각종 단체 회원, 그 밖의 친지 (이상 '비전문 대인 정보원'), 관련 분야의 전문가 ('전문 대인 정보원'), 도서관, 정보 센터, 정부 기관,

지역 사회 단체, 긴급 구조 전화 (이상 '기관 정보원'), 신문, 도서/잡지, 텔레비전, 라디오 (이상 '대중 매체 정보원')을 포함한다.

〈표 2〉 한인들이 이용한 정보원 (N=171)

정보원의 종류	이용자수	%
친구/이웃	109	63.7
가족/친척	107	62.6
관련 분야의 전문가	104	60.8
신문	91	53.2
도서/잡지	89	52.0
각종 단체 회원	72	42.1
그 밖의 친지	53	31.0
텔레비전	51	29.8
라디오	46	26.9
도서관	41	24.0
지역 사회 단체	37	21.6
정보 센터	25	14.6
정부 기관	23	13.5
긴급 구조 전화 (hotline)	16	9.4

이전의 여러 연구 (Chen & Burger, 1985; Dervin, et al., 1984; Chen & Herson, 1982; Palmour, et al., 1979; Dervin, et al., 1976) 에서는 개인의 지식과 경험을 정보원의 하나로 간주하여 가장 많이 이용되는 정보원의 하나라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보통 사람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과 경험이 자신의 정보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때에 외부의 정보원에서 정보를 구하게 되는 것이므로 개인의 지식과 경험은 정보원의 하나이기보다는 정보 추구의 전체 조건이라고 보고 제외하였다 (Ajzen & Fishbein, 1980; Atkin, 1973). 이 연구에서 한인들은 열 네가지 정보원 중 한 사람이 평균 다섯 가지 정도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전문 대인 정보원의 이용: 한인들은 대체로 비전문 대인 정보원에 가장 많이 의존하고 있었는데 특히 가장 빈번하게 이용한 정보원은 그중에서도 친구/이웃

(N=109, 63.7%)과 가족/친척 (N=107, 62.6%)으로 이같은 주변인물의 정보원으로서의 역할은 다른 여러 연구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Snyder, 1976; Warner, Murray, & Palmour, 1973). 그러나 뒤에서 상술했지만 사람들이 비전문 대인 정보원을 자주 이용하는 것이 반드시 이들 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의 질이 좋기 때문은 아니다.

전문 대인 정보원의 이용: 한인들은 의사, 변호사, 상담 전문가 등 관련 분야 전문가의 도움도 비교적 많이 구하는 편이었다 (N=104, 60.8%). 각 주제 분야별로 살펴 보면 법률 관계의 정보 요구를 갖는 사람들이 전문가를 찾는율이 가장 높고 (93%), 건강 및 정신 건강 (81%), 자녀 양육 및 교육 (64%), 경제 문제 (61%)를 가진 사람의 순으로 한번이라도 전문가에게 의뢰한 적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민 생활에 관한 정보 요구를 가진 사람들이 가장 적게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편이었다 (38%). 다른 연구에 의하면 일반 대중은 전문가의 도움을 그다지 많이 구하지 않는다 (Dervin, et al., 1984; Chen & Hernon, 1982). 전문가에게 정보를 구하는 계층은 주로 학력, 경제력이 높은 일부에 편중되어 있다. 이 연구에서 한인들이 전문가를 비교적 많이 찾는 이유는 전반적으로 학력 수준이 높고 전문직에 종사하는 응답자가 많기 때문일 수도 있다.

대중 매체 정보원의 이용: 신문 및 도서/잡지의 이용은 각각 50% 이상으로 30% 이하의 이용율을 보인 텔레비전 (29.8%)과 라디오 (26.9%)에 비할 때 한인들이 전파 매체보다는 인쇄 매체를 선호함을 보여 주었다. 몇몇 연구들에서는 대중 매체의 이용이 사람들의 정보 추구에 영향을 주는 생활 양식 변인 중의 하나라고 하였다 (Chatman, 1985; Wilson, 1977; Campbell & Metzner, 1952). 즉 자기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정보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여러 종류의 매체를 일상 생활에서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이 연구에서는 꽤 많은 한인들이 활자 매체를 주요한 정보원의 하나로 여기고 있어 평소엔 신문 기사를 오려 둔다거나 도서나 잡지를 구입하여 문제가 생길 때 이용하도록 대비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기관 정보원의 이용: 가장 적게 이용되는 것은 기관 정보원들이었다. 기관의 낮은 이용율은 다른 연구에서도 보고된 바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기관 정보원으로 분류된 다섯 가지가 모두 최하위의 이용율을 보였다. 그중 많이 이용된 것은 도서

관이었다. 응답자중 24%가 도서관을 이용한 적이 있었는데 이는 다른 연구에 비해 높게 나타난 수치이다. 예를 들어 1979년 Palmour 등이 주관한 연구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민중 동양계의 20%, 백인의 10%, 흑인 및 남미계의 5%이하가 정보를 구하려는 목적으로 도서관을 이용한 적이 있다고 하였다 (Palmour, et al., 1979). 한인의 높은 교육 수준이 그들이 정보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도서관을 이용하는 율이 다른 민족들보다 높은 것을 설명하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교육을 더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도서관을 이용하는 율이 높았다.

이 연구에서 도서관과 정보 센터를 분리해서 살펴 본 것은 한인 건강 정보 센터, 한국 무역 협회 정보 센터 등과 같이 특정한 분야의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 이용은 그다지 활발한 편은 아니다. 기관 정보원에는 한인회, 한인 청소년 회관 등의 각종 지역 사회 단체와 마약 관계, 자살 방지, 성범죄 예방 및 대비 등에 관한 긴급 구조 전화 등의 기관도 있으나 이들 또한 그렇게 많이 정보원으로 이용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4.3 한인 사회 정보원의 이용

이 연구에서 한인 사회 정보원은 첫째, 주로 한국어를 사용하고, 둘째, 보통 한인 사회의 지리적 환경안에 위치하며, 셋째, 한인들의 관심사와 필요한 바를 다루는 정보원으로 정의하였다. 이에 반해 미국 정보원은 그밖에 미국의 주류 사회 시민들이 사용하는 모든 정보원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어느 응답자가 정보를 구하기 위해 미국인 친구에게 물어 보았을 경우 이 사람은 미국 정보원을 이용한 것이고 한국어로 된 신문을 읽었으면 한인 사회 정보원을 이용한 것이다. 이 연구에서 한인들이 열 네가지 정보원 중 도서관(58.3%)과 정부 기관(86.7%)을 제외한 나머지의 정보원을 이용할 때에는 한인 사회 정보원을 절대적으로 선호하였다. 한인 사회 정보원의 이용이 전체 이용의 60 내지 100%를 차지하고 있다.

한인들이 비전문 대인 정보원을 이용할 때에는 절대적으로 한인에 의존하는 성향을 볼 수 있다. 비전문 대인 정보원을 이용한 응답자들 중 한인이 아닌 가족/친척을 정보원으로 이용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친구/이웃 및 그밖의 친지를 이용

〈표 3〉 한인 사회 정보원과 미국 정보원의 이용

정보원의 종류	한인 사회 정보원만 이용	미국 정보원만 이용	합 계
	N (%)	N (%)	N (%)
가족/친척	107 (100)	0 (0)	107 (100)
친구/이웃	105 (96.4)	4 (3.6)	109 (100)
전문가	81 (78.5)	23 (21.5)	104 (100)
신문	83 (91.2)	8 (8.8)	91 (100)
도서/잡지	63 (70.8)	26 (29.2)	99 (100)
각종 단체 회원	62 (86.2)	10 (13.8)	72 (100)
그 밖의 친지	49 (92.6)	4 (7.4)	53 (100)
텔레비전	35 (68.5)	16 (31.5)	51 (100)
라디오	36 (78.4)	10 (21.6)	46 (100)
도서관	17 (41.7)	24 (58.3)	43 (100)
지역 사회 단체	29 (78.2)	8 (21.8)	37 (100)
정보 센터	15 (60.3)	10 (39.7)	25 (100)
정부 기관	3 (13.3)	20 (86.7)	23 (100)
긴급 구조 전화	9 (56.4)	7 (43.7)	16 (100)

한 경우에도 절대적으로 한인에 의존하였다. 한가지 특기할만한 사실은 각종 단체 회원의 이용 또한 한인이 압도적이라는 것이다. 한인 사회에서는 특히 교회나 동창회, 향우회, 직업별 단체 등이 정보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에서 교회는 한인의 이민 초기에서부터 '공동체 생활 센터'로 알려져 있고 이민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Yi, 1989; Hurh & Kim, 1984; Houchins & Houchins, 1974). 한편 동창회는 한인 사회에 특수하게 존재하는 단체로서 일종의 혈연과 같은 농도의 친분으로 도움을 주고 받는 것으로 여겨진다 (Lee, 1977). 이 연구에서도 한인들이 속한 각종 단체 회원이 정보원으로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다는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미국 정부 기관이 한인 사회의 정부 기관들보다 많이 이용된다는 것도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한국 문화원, 한국 영사관, 무역 협회, 한국상공회의소 등 한국 정부 및 공공 기관이 로스앤젤레스 지역에 상주하고 있으나 이들이 한인들의 일상 생활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은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한인 사회에서 생기는 공동의 관심사를 처리하기 위해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한인 지역 사회 단체의 이용은 그보다 높은 편이다.

이 연구에서 한인들은 절대적으로 한인 사회 정보원에 의존하였다. 이는 한인들이 정보를 구하는데 있어서 주류 사회와는 지극히 제한된 교류만을 갖는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한편 한인 사회 정보원의 이용율이 응답자의 영어 구사 능력과 상관 관계를 갖는다는 것은 전혀 놀라운 사실이 아니다. 응답자가 영어를 잘 구사할수록 한인 사회 정보원에만 의존하는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 또한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한인 사회 정보원에 의지하는 비율이 낮았으며, 미국내 거주 연한이 긴 사람일수록 미국 주류 사회의 전문가에게 정보를 구하는 율이 높고 반대로 한인 가족이나 친척 등에게 정보를 구하는 율이 낮아지고 있었다.

4. 4 맨 처음 이용한 정보원과 가장 유용한 정보원

정보를 구한 적이 있는 177명의 응답자중 144명이 이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특정한 정보 요구를 위해 이용한 정보원중 가장 먼저 선택한 정보원을 밝힐 수 있었고, 157명이 어느 것이 가장 유용한 것이었는지 밝힐 수 있었다. 열 네가지 정보원

중 사람들이 흔히 맨 먼저 선택하거나 가장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정보원은 정보 추구의 전과정에서 보통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들과 거의 일치하고 있었다.

〈표 4〉 맨 처음에 선택한 정보원의 종류와 가장 유용한 정보원의 종류

정보원의 종류	맨 처음 선택한 정보원	가장 유용한 정보원
	N (%)	N (%)
전문가	31 (21.5)	53 (33.8)
친구/이웃	30 (20.8)	24 (15.3)
도서/잡지	16 (11.1)	19 (16.1)
가족/친척	23 (16.0)	12 (7.6)
신문	12 (8.3)	11 (7.0)
각종 단체 회원	9 (6.2)	11 (7.0)
도서관/정보 센터	8 (5.6)	9 (5.8)
합 계	133 (89.8%)*	139 (88.6%)**

* 5%이하의 이용자가 지정한 지역 사회 단체 (3.5%), 그 밖의 친지 (3.5%), 정부 기관 (2.1%), 라디오 (1.4%)는 도표에 넣지 않았다 [N=141, 100%].

** 5%이하의 이용자가 지정한 지역 사회 단체 (1.3%), 그 밖의 친지 (3.2%), 정부 기관 (1.9%), 라디오 (3.8%)는 도표에 넣지 않았다 [N=157, 100%]

한인들은 정보를 구하는 첫 단계에서 직접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21.5%). 실제로 단일 정보원으로서 가장 많이 맨 처음에 선택되는 것이 각 관련 분야의 전문가였는데 이는 또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장 유용하다고 생각한

정보원이기도 하다 (33.8%).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처음부터 전문가를 찾기도 하고 처음에는 전문가를 찾지 않았더라도 정보를 구하는 과정의 어느 시점에서 그들의 도움을 받게 되고 그로부터 받은 도움이 가장 유용한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한인들이 가장 먼저 이용하기 좋아하는 것은 비전문대인 정보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속하는 네 가지 정보원을 합쳐 볼 때 맨 처음 선택되는 정보원의 48%를 차지하고 있어 정보 추구의 초기 단계에서 가족, 친지 등 주변 인물들의 중요성에 대하여 보여 주고 있다. 여러 다른 연구에서도 이같은 양상이 나타난 적이 있다 (Simsosa & Chin, 1982; Beal, 1979; Louie, 1976; Snyder, 1979). 그러나 이같은 비공식 대인 정보원들은 그렇게 자주 이용되는 것에 비해서 실제적인 유용성은 매우 제한된 것으로 보인다. 전체 응답자의 88%가량이 정보를 구하는 과정에서 적어도 한 가지의 비공식 대인 정보원을 이용했고 그들 중 반 정도는 맨 첫번에 이용했는데도 그것이 가장 유용하다고 지적한 이용자의 수는 비교적 많지 않다. 이러한 결과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정보원이 반드시 그들의 정보 요구를 충족시키는데 가장 유용하거나 도움이 많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 다른 연구에서의 발견을 뒷받침하고 있다 (Dervin, et al., 1984; Chen & Hernon, 1982).

전체적으로 기관 정보원은 맨 처음 선택되는 빈도도 낮고 그 유용성도 높지 않은 편이나 신문, 도서/잡지 등 활자 매체 정보원은 비교적 무난한 이용율과 유용성을 보였다.

응답자들에게 정한 정보원을 가장 먼저 선택한 이유 및 어느 정보원이 가장 유용하다고 생각한 이유에 대해서 서술하게 하였다. 그 응답의 내용을 분석하여 비슷한 이유들끼리 모아 정보원의 전문성 및 경험, 편리함, 정보의 질 및 기타의 네 범주로 나누었다.

전문성 및 경험의 범주에는 정보원이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지녔거나 비슷한 경우에 처한 경험이 있는 것 등이 포함되었고, 정보의 질 범주에는 특정 정보원이 최신 정보, 포괄적이고 믿을만한 정보, 혹은 정확한 정보를 줄 수 있다는 기대가 있는 것이 포함되었다. 편리함의 범주에는 지역적으로 편리함, 접촉이 용이함, 쉽게 구할 수 있거나 이용하기 쉬움 등이 포함되었으며 기타의 범주에는 우연히 이용하게 됨, 선택의 여지가 없었음, 특별한 이유가 없었음 등이 포함되었다.

4. 5 맨 처음에 정보원을 선택한 이유와 특정한 정보원이 가장 유용하다고 생각한 이유

〈표 5〉 맨 처음에 정보원을 선택한 이유와 특정한 정보원이 가장 유용하다고 생각한 이유

선택의 이유	처음에 선택한 정보원	가장 유용한 정보원
	N (%)	N (%)
전문성 및 경험	60 (42.6)	93 (62.8)
정보의 질	24 (17.0)	36 (24.3)
편리함	30 (21.3)	10 (6.8)
그밖의 이유	27 (19.1)	9 (6.1)
합 계	144 (100%)	148 (100%)

결과를 보면 정보원이 전문성이나 경험을 지녔다는 것이 정보원을 처음 선택할 때나 정보원이 가장 유용하다고 할 때 공통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정보의 질에 대한 기대가 두 경우 모두에서 중요한 이유로 나타났다. 편리성이나 기타 이유와 비교해 보면 앞서의 두 가지 특성이 갖는 중요성은 더욱 명백해진다. 응답자중 40%가량이 맨 처음 정보원을 선택할 때 편리성 혹은 기타의 이유로 선택하지만 정보원의 유용성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13%이하만이 이 두 가지를 이유로 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주로 비공식 대인 정보원의 특성에 관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뉴 잉글랜드 지역에서의 연구에 의하면 사람들이 비공식 대인 정보원에 크게 의존하는 이유는 그들이 즉시 접촉이 가능하고 다른 정보원들보다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Chen & Herson, 1982). 이 연구는 이같이 편리하다는 이유로 정보원을 선택했을 경우에 그 정보원이 유용한 정보를 주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

한편 정보원의 선택 이유와 응답자의 성별 사이에는 상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

였다. 여자가 남자보다 정보원을 선택할 때 편리성에 의존하는 빈도가 높았으며 남자는 여자보다 정보원이 줄 수 있는 정보의 질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었다 [$\chi^2=12.598$, $p=0.013$].

5. 토 의

5.1 적극적으로 정보를 추구하는 한인

이 연구에서 살펴 본 한인들의 대부분은 자신의 일상 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를 구하는 것에 비교적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우선 많은 한인들은 미국에서의 생활이 자신의 삶의 질을 기본적으로 제한하거나 저하시키고 있다고 생각한다. 영어 구사력의 한계, 미국 문화와 제도에 대한 지식의 결여, 각종 자원의 소재에 대한 인식 부족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그들이 한국에 살고 있었더라면 비교적 쉽고 자신있게 감당할 수 있었을 문제들을 처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의 지식 수준, 교육 정도, 미국내 거주 연한 등의 조건과 무관하게, 한 응답자가 이름 붙인 것처럼 '만성적 정보 결핍 증세'를 겪고 있으며 그로 인해 일상의 사소한 일을 처리하는 것에조차 종종 곤란을 느낀다고 한다. 그러나 이같은 상황에서 한인들은 자신의 정보 요구를 잘 인식하고 있고, 자신이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해 잘 표현을 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정보를 추구하기 원한다. 정보를 구할 때에는 다양한 정보원을 이용하며 비전문대인 정보원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기는 하지만 관련 분야의 전문가에 대한 중요성 또한 잘 인지하고 있다. 한인들은 또한 그들이 정보를 구하는 초기 단계에서도 종종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처음부터 정보원이 갖는 전문성 및 경험, 정보의 질 등을 중시해서 정보원을 선택하기도 한다.

다른 연구에서는 소수 민족들이 주로 정보 요구에 대한 인지의 결여, 표현 능력의 부족, 정보를 구하려는 의지의 결여, 정보를 구할 때 제한된 정보원의 이용하는 등의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Childers, 1975). 이 연구에서 살펴 본 한인들은 극소수만이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어 한인의 정보 추구 행태는 일반적 소수

민족의 연구에서와는 달리 주류 사회의 중산층 시민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연구는 소수 민족의 정보 추구 행태를 정보 빈곤층과 동일시하는 연구 경향에 대하여 이론을 제기할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미국내의 소수 민족들이 각 민족의 특성에 따라 일상 생활에서 정보를 구하는 태도에서도 그 차이가 드러나는데 특히 한인들은 눈에 띄는 적극적, 긍정적 태도를 지니고 있어 다른 소수 민족들 혹은 이른바 정보 빈곤층과는 크게 구분될 수 있다는 것이다.

5.2 한인 사회 정보원의 중요성

한인들의 정보 추구는 전적으로 자신들의 소수 민족 사회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극소수의 한인들만 (boundary - spanners) 이 정보를 구할 때 주류 사회의 정보원을 이용함으로써 자신의 소수 민족 정보 환경을 벗어나고 있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주류 사회와 접촉이 없는 한인들을 위해서 비공식 대인 정보원의 접촉은 한인들 개인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므로 대책이 있을 수도 없고 필요하지도 않을 것이지만 주류 사회 기관 정보원의 이용은 제고시킬 수도 있다. 우선 도서관이나 그밖의 정보 서비스 기관들이 도움이 되고자 한다면 먼저 한인 사회의 반경안으로 들어가야 할 것이다. 그중 한 가지 방법은 한인들이 정보를 구하기 위해 비교적 많이 접촉하는 한인회나 한인 청소년 회관 등의 한인 지역 사회 단체들과 긴밀한 유대 관계를 맺고 이 기관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자기들이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이나 서비스의 특색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그들이 한인들의 일상 생활 전반에 관련된 양질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을 인식시켜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한인 사회 단체를 information and referral center로 삼아 일단 이 기관들을 찾아 오는 사람들에게 경우에 따라 각자 필요로 하는 바에 관련된 미국 기관과 연결시켜 주게 하는 것이다.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은 이 관련 기관들이 한국어를 구사할 줄 아는 직원이나 자원 봉사자들을 확보하여 한인들에게 직접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한다. 이 연구에서 본 것처럼 한인들의 삼분의 이 정도가 영어로 의사 소통하는 것에 능통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이중 언어 직원 (bilingual worker)을 상주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동시에 한인 사회의 대중 매체를 이용하여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로스 앤젤레스 시립 도서관 피오 피코 분

관 (Los Angeles Public Library Pio Pico Branch) 이나 가디나 (Gardena) 시립 도서관 등 한인이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에 자리한 몇 도서관들이 한국인 사서를 두고 한국어로 된 자료를 비치하는 한편으로 한국어 신문과 방송을 통해 그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안내해 주고 있다. 이같은 방법은 한국처럼 공공 도서관의 역할이 눈에 띄이지 않는 사회에서 살던 한인들에게 가까이 가는 가장 바람직한 예로 그밖의 다른 기관들에서도 실행해야 할 것이다.

6. 이후의 연구를 위한 제언 및 결론

이 연구에서는 미국 로스 앤젤레스에 살고 있는 한인들이 일상 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를 구할 때의 특성에 대하여 살펴 보았다. 한인들은 한인 사회의 정보 환경안에서 비교적 적극적인 태도로 자기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구하며 정보원과 정보의 질을 중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 연구가 로스 앤젤레스라는 한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한인들이 현재 갖고 있는 정보 추구 행태를 기술하는 것에 그치게 되었으므로 앞으로의 연구에서 더욱 깊게 또한 폭넓게 다루어져야 할 몇가지 과제를 언급할 필요가 있다.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의 정보 환경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첫째, 매우 적은 수의 한인들만이 살고 있고 따라서 극히 제한된 한인 사회 정보원만이 얻어질 수 있는 지역의 한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로스 앤젤레스와 같이 비교적 많은 한인 시설을 갖춘 한인 사회에서 사는 사람들의 정보 요구 및 정보 추구 행태와 그렇지 않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그것과는 차이가 있을지도 모른다. 예를 들어 한인이 자기의 지역 사회에서 개인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한인의 수가 적으면 한인 사회 밖에서 미국인들과 더욱 빈번히 접촉하거나 아니면 아예 정보 결핍의 상태를 감수하며 적으면 적은대로의 한인과만 접촉하고 말 수도 있다. 이같은 측면을 살펴봄으로써 한인 사회내에서 얻어지는 정보원의 다양성이 그들의 정보 추구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 한인 사회에서 얻어지는 정보의 양과 질을 측정, 평가하고 주류 사회에서 구할 수 있는 정보의 양과 질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나 살펴 보고 있는 것이 필요

하다. 이 연구에서는 한인이 자신들의 소수 민족 정보원에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것을 보여 주었으나 그같은 한인 사회 정보원에서 얼마만큼의 정보를 구했는지도 또한 그 정보가 얼마나 양질의 것인지에 대해서는 살펴 보지 않았다. 같은 주제 분야의 정보를 미국 정보원에서 얻을 때와 한인 사회 정보원에서 얻을 때에 내용면에서, 질적인 면에서, 그리고 양적인 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 봄으로써 과연 한인들이 얼마 만큼 풍요로운 정보 환경에서 살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비공식적으로 접촉하는 대인 정보원에서 얻는 정보를 평가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우선 비교가 가능한 각종 매체와 기관 정보원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의 질에 대해서 평가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세제로 이 연구가 완료된 이후로 현재까지 이르는 동안에 로스 앤젤레스에 사는 한인들의 정보 요구와 정보 추구 행태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살펴 보는 것이다.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사람들의 요구와 행태에 변화가 있다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다. 이 경우에는 특히 한인들이 1992년 4월 로스 앤젤레스에서 일어난 흑인 폭동과 같은 일종의 위기 상황을 겪은 후에 일어나는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사회적 충격과 집단적 경험이 일상 생활에서의 정보 추구 행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깊이 연구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Ajzen, Icek, & Fishbein, Martin. (1980). *Understanding attitudes and predicting social behavior*. Englewood Cliffs, New Jersey: Prentice - Hall.
- Beal, Christina. (1979). Studying the public's information needs. *Journal of Librarianship*, 11, 130 - 151.
- Campbell, Angus, & Metzner, Charles A. (1952). *Public use of the library and other sources of information*. Rev. ed. Ann Arbor, Michigan: University of Michigan, Institute for Social Research.
- Chang, Won Ho. (1972). *Communication and acculturation: a case study of Korean ethnic group in Los Angel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Iowa, Iowa City, IA.
- Chatman, Elfreda A. (1985). Information, mass media use and the working po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7, 97 - 113.
- Chen, Ching - chih, & Burger, Leslie B. (1985). *Assessment of Connecticut citizen's information needs and library use study: Final report*. Hartford, Conn. : Connecticut State Library.
- Chen, Ching - chih, & Herson, Peter. (1982). *Information seeking: Assessing and anticipating user needs*. New York: Neal - Schuman.
- Childers, Thomas. (1975). *The information - poor in America*. Metuchen, NJ: Scarecrow.
- Dervin, Brenda, et al. (1976). *The development of strategies for dealing with the information needs of urban residents: Phase I - - citizen study*. Washington, DC.: U.S. Dept. of Health, Education, and Welfare, Office of Education, Office of Libraries and Learning Resources.
- Dervin, Brenda, et al. (1984). *The information needs of Californians - - 1984*. Davis, CA: Institute of Governmental Affairs, 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 for California State University.

- Duran, Daniel Flores. (1977). *Latino communication patterns: An investigation of media use and organizational activity among Mexican, Cuban, and Puerto Rican residents of Chicago*.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Wisconsin, Madison, WI.
- Durrance, Joan C. (1989). Information needs: old songs, new tunes. *School Library Media Quarterly*, 17, 126-130.
- Gardner, Robert W., Robey, Bryant, & Smith, Peter C. (1985). Asian Americans: Growth, change, and diversity. *Population Bulletin*, 40, 1-41.
- Han, In Young. (1988). *A study on help seeking patterns among Korean American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ase Western University, Cleveland, OH.
- Haro, Robert P. (1981). *Developing library and information services for Americans of Hispanic origin*. Metuchen, NJ: Scarecrow Press.
- Houchins, Lee, & Houchins, Chang-su. (1974). The Korean experience in America, 1903-1924. *Pacific Historical Review*, 43, 548-575.
- Kim, Young Yun. (1977). Communication patterns of foreign immigrants in the process of acculturation.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4, 66-79.
- Lee, Don Chang. (1977). Korean community structures in America. *Korea Journal*, 17, 49-55.
- Light, Ivan, & Bonacich, Edna. (1988). *Immigrant entrepreneurs: Koreans in Los Angeles, 1965-1982*.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Louie, Ruby Ling. (1976). *A community profile approach toward expanding public library services: Communication survey procedures reaching Chinese Americans in the Los Angeles Chinatown community and obtaining their information seeking pattern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Los Angeles, CA.
- Palmour, V., et al., (1979). *Information needs of Californians: Commissioned by California State Library for the California Governor's Conference on*

- Libraries and Information Services*. Sacramento, CA: California State Library.
- Saracevic, Tefko. (1987). Cognitive patterns in online searching. In Java Verlejs (Ed.), *Information seeking: Basing services on users' behaviors* (pp.24-39). Jefferson, NC: McFarland.
- Sirnsova, Sylva, & Chin, Wey Tze. (1982). *Library needs of Chinese in London*. London: The Polytechnic of North London School of Librarianship and Information Studies.
- Snyder, Peter Z. (1976). *Neighborhood gatekeepers in the process of urban adaptation: Cross-ethnic commonalities*. *Urban Anthropology*, 5, 35-52.
- U.S. Commission on Civil Rights. (1988). *The economic status of Americans of Asian descent: An exploratory investigation*. Washington, DC.
- U.S. Dept. of Commerce. (1983). *1980 census of population, vol. 1. Characteristics of the population, Ch.C. General social and economic characteristics, Pt.6. California*. PC80-1-C6. Washington, DC: Dept. of Commerce, Bureau of the Census.
- United Way, Inc. (1984). *Koreatown profile report*. Los Angeles, CA.
- Warner, Edward S., Murray, Ann D., & Palmour, Vernon D. (1973). *Information needs of urban residents*. Baltimore, MD: Regional Planning Council.
- White House Conference on Library and Information Services (WHCLIS). (1979). *Information for the 1980's: Final report of the White House Conference on Library and Information Services*. Washington, DC. WHCLIS.
- Wilson, Pauline A. (1977). *A community and the public library: The use of information in leadership*. Westport, Conn.: Greenwood Press.

ABSTRACT

The Information Seeking Behavior of Koreans in the United States

Cheong-Ok Yoon*

This study was inspired by the growing importance of information as a resource for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the lack of systematic research about the information environment of Koreans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lack of understanding of the relationships between individual characteristics and information seeking behavior. During 1990 and 1991, 204 Koreans, 18 years old and more, residing in the City of Los Angeles, were interviewed.

Generally the information seeking behavior of Koreans appeared to be similar to that of the socioeconomically advantaged segment of the general public. They are relatively well aware of their information needs, capable of articulating them, and willing to pursue information to meet their needs.

Major findings include: (1) the dominance of educational information needs; (2) positive feelings of hope, curiosity, and interest associated with information needs; (3) the tendency to pursue information with the expectation of potential rather than immediate rewards; (4) the expertise of information sources and their ability to provide information directly relevant to a need as criteria for selecting an information source; (5) the generally heavy reliance on informal interpersonal information sources and the high ranking of professionals as the starting point for information seeking and in judgements of usefulness; and (6) the dominant use of Korean ethnic information sources.

* Bibliographic consultant, Davis, California, U.S.A.

Statistically significant correlations found at the 0.05 level relate (1) level of education, age, and gender with type of information need, the feelings associated with an information need, motivations to seek information, and the use of information sources, (2) proficiency in English and length of residence in the United States with the extent to which ethnic information sources are used, and (3) pattern of daily use of media with the use of media in seeking information.